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- ◆ 근로손실일수 감소 및 분규참가자수 증가
- 2005년 2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다소 감소함(표 1 참조).
 -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2건으로 전년동기 9건에 비해 늘었지만 분규참가자수는 1,630명으로 전년동기의 20,023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, 근로손실일수도 30,715일로 전년동기 49,562일에 비해 감소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천일)

	2003. 2. 20	2004. 2. 20	2005. 2. 20
노사분규발생건수(개소)	15	9	12
분 규 참 가 자 수(명)	1,202	20,023	1,630
근 로 손 실 일 수(천일)	25,651	49,562	30,715

주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자료: 노동부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- ◆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출
- 2월 17일 실시된 제21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현

이용득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됨.

-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이용득 후보는 67%(484표)를 득표해 1차에서 당선이 결정됨.
- 이용득 당선자는 당선인사에서 한국노총의 개혁과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갈등의 해소 및 국민과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 실현을 다짐하면서,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함.
- 이용득 현 위원장이 무난히 재선됨에 따라 한국노총의 기조는 급격한 변화 없이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.

◆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난항 끝 연기

-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난항 끝에 유회되고 3월 중순으로 연기됨.
 - 2월 1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를 토론하고 표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대의원 및 참관인의 방해로 물리적 충돌을 겪은 끝에 성원 미달로 유회됨.
 - 이후 2월 19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35차 대의원대회를 3월 중순으로 연기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도 함께 결정하기로 결의함.
 - 3월 중순 개최될 차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고 리더십의 수준이 검증될 것으로 전망됨.

◆ 양대노총 임금인상요구율 결정

-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·발표함.
 - 한국노총은 정규직의 경우, 월고정임금 총액(월정액급여+상여금월할액) 기준 9.4% 인상을 요구하고 비정규직은 19.9% 인상을 제시함.
 -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경우, 산업별 편차를 고려해 9.3±2%로 비정규직은 15.6%로 임금인상요구율을 잠정 결정한 가운데 사회적 교섭방침 등과 관련해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논의가 유보되면서 최종안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음.
 - 이렇듯 양대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인상요구율을 별도로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올해 임금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.

◆ 경영계 올해 노사관계 낙관적 전망

○ 전경련 회원사 및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자에게 질문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은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나타남.

- 대체로 안정(39.7%)되거나 매우 안정(5.2%)될 것이라는 응답이 44.9%로 전년과 비슷(43.9%)하거나 불안(11.2%)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음.
- 업종별로 보면, 건설, 공공, 유통, 전자·정보 업종 등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금융, 금융, 서비스업의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불안할 것으로 전망됨.
- 이슈별로 보면, 근로시간 단축은 응답업체의 57.0%가 이미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도입 시기는 법개정 내용에 따라 실시(31.1%)하고 법규정상의 연월차휴가 등을 축소하겠다(18.9%)는 응답이 우세함.
- 비정규직의 경우, 응답업체의 58.5%가 현재의 비정규직 운영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7.4%에 그침.
- 한편 산별교섭의 경우, 이종교섭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증가를 우려(63.6%)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으며, 노노 및 노사간 갈등 증폭(59.5%),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(52.2%) 순으로 산별교섭 실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합리적 교섭결과 기대(6.5%), 전문성 증대(4.0%), 감정대립 최소화(4.0%), 교섭기간 및 비용 절감(3.2%)의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주요노동일지

(2005. 1. 16~2. 20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5. 1. 17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대자동차노조: 불법파견 등 관련 전·현직 위원장 기자회견 개최 KIST노사: 임단협 교섭 관련 전면파업 중(2004. 12. 28~) 임단협 합의타결
1. 2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주노총: 정기대의원대회 개최, 성원미달로 유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오롱노조: 고용조정 관련 조정신청 기아자동차노조: 채용비리 관련 집행부 총사퇴 긴급성명 발표
1. 22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 분신
1. 25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은행노사: 희망퇴직 실시 합의
1. 26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천·여주·양평지역 노사정: 노사정 화합공동선언문 채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우종합기계노조: 실사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(1. 17~) 중 협상안건 확정 후 실사 허용
1. 28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양지역 노사정: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위한 공동협약 채택 	
2. 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주노총: 정기대위원대회 개최, 사회적 교섭안건 관련 물리적 충돌 속 성원미달로 유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오롱노사: 고용조정 합의
2. 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노총: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개최, 2005년 임금인상요구율 등 결정 민주노총 금속연맹: 정기대의원대회 개최, 임원재선거 과반수 득표 미달로 무산 	
2. 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노동연구원: 제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주노총: 불법파견 분쇄·정규직화 쟁취 영남권 결의대회 개최 	
2. 4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도시철도노사: 200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
2. 17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노총: 전국대의원대회 개최, 위원장 선거, 이용득 현 위원장 재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구지하철노조: 주40시간제 시행 관련 잠정합의안 가결
2. 20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: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일부 조합원 농성 파업 계속(1. 18~)